

“이 여러 계명의 참됨에 대한 증거” (교리와 성약 67:4)

교리와 성약 67장 4~9절을 함께 읽으면서 다음 질문들에 대해 본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에 대한 장로들의 우려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 5절에 따르면, 장로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는가? 이 계시는 그들이 선지자가 받은 계시를 보는 관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 주님께서는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도록 권유하셨는가?

조셉 스미스에게 교리와 성약 67편이 계시된 후 일어난 일과 관련하여 조셉 스미스의 역사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어 본다.

“보통 사람보다 배운 것이 많아 자신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자부하던 [윌리엄] 이 매클렐른은 주님의 계명 중 가장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를 골라 그에 비견될 만한 계명을 직접 적어 보려 시도했으나 결국은 실패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글을 쓰는 일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거운 책임이었다. 장로들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모방하려 하는 인간의 헛된 시도를 목격한 뒤, 복음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 내리신 계명과 계시가 참되다는 신앙을 한층 새롭게 했다. 그리고 장로들은 그것들이 참됨을 온 세상에 기꺼이 증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보였다.”(Manuscript History of the Church, vol. A-1, p. 162, josephsmithpapers.org)

이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진리를 한 가지 이상 써 본다.

- 그러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믿는 더 큰 신앙을 실천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